

사회

# “자가용 없는 사람 어떻게 출근하라고...”

## 버스업계 운행 중단 결의에 이용객 큰 혼란·분통

### “표 의식 선심성 정책” 정치권 맹비난도

“자가용 없는 우리 같은 서민들은 광주에서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 출근 하라는 말인가요?”

버스업계가 “22일 첫차부터 무기한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결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밤늦게까지 중단 여부도 확정짓지 못하면서 광주시나 전남도 등 행정기관은 물론 버스 이용객들까지 큰 혼란에 빠졌다. 특히 일각에서는 버스 운행 중단으로 지각 사태가 속출하고 일부 업체나 기관에서 정상적인 업무처리마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와 함께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오후 4시경 전국 버스의 무기

한 운행 중단 결의의 소식이 전제지자 광주시와 전남도 등 ‘비상운송대책상황실’에는 실제 버스 운행 중단 여부와 대체 버스 운행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또 각 학교와 교육청에도 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등교 시간과 학교 휴업 여부를 묻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잇따랐다.

특히 이날 오후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하면서 버스업계가 즉각적인 운행 중단을 표명, 행정기관은 물론 시민들까지 사상 초유의 시내·외 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광주시 등은 전세·통근버스, 승합차 등을 대기시켰고 시민들은 출근 시간을 앞당길 생각에 퇴근길을 재촉하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 일부 시군 등의 버스업체들이 운행중단 결정이후 입장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입장을 명확히 내놓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도시하고 업계 손익만 따지는 업계의 관행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버스업계는 이날 밤 9시까지 운행중단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같은 운행 중단을 표명, 행정기관은 물론 시민들까지 사상 초유의 시내·외 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최성규(67)씨는 “대중교통이자 서민들의 발인 버스 운영을 불모로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버스업계와 정치권, 택시업계가 충분한 대화를 거쳐 합의안을 이끌어 낸 뒤 운행 중단 등을 운운해도 늦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광자(여·51)씨는 “대선 때만 되면 되풀이 되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한다는 법을 개정안 상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은 100만명에 달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버스업계 관계자는 “다른 시도의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을 하느라 지역마다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멧돼지 포획 훈련

아생 멧돼지의 도심 출몰이 잦아 21일 광주시 북구 용전동 용산고 아래에서 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기동포획단원들이 사냥개를 동원, 포획 훈련을 하고 있다.

/최현희기자 choi@kwangju.co.kr

## 짜퉁 등산의류 명품 둔갑

### 수억대 판매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검거

최근 유행하고 있는 해외 유명 등산 의류의 짜퉁 상품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유명 상표인 노스페이스, 아

크레딧, 몽클레어, 블랙야크 등을 도용해 가짜 등산 의류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한 이모(33)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경부터 인터넷 쇼핑몰 및 대구 서문시장 내에서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짜퉁 등산 의류 수억원 어치를 정품의 50~70%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쇼핑몰 사무소를 급습해서 4억2000만원 상당의 가짜 의류 505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짜퉁 유명 등산 의류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이씨의 계좌를 추적해 거래처, 제작업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전기료 못내 촛불 생활 할머니·손자 화재 참변

### 6개월분 15만원 미납

### ‘전류 제한 조치’ 당해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놓고 잠든 조순 가정 주택에서 불이 나 할머니와 외손자가 숨졌다. 이들 가정은 마땅한 수입이 없어 생계마저 위협받을 정도로 어렵게 생활했던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되지 못했다.

고흥군 도덕면에 사는 주모(60)·김모(여·58)씨 부부는 21일 새벽 3시경 외손자 주모(4)군이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전기요금이 부담돼 전등을 켜는 대신 촛불에 불을 붙였다. 요강을 찾기 위해서였다.

최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6개월 분 전기요금 15만7000원을 납부하지 못해 지난달 30일 한전으로부터 ‘전류제한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류제한조치에 따라 220W 이하의 전기는 사용할 수 있었지만 주씨 부부는 그마저도 아까워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한전이 확인했을 때도 사용량이 제로였다.

하지만 주씨 부부는 다시 잠이 들면서 촛불을 끄는 것을 깜빡했다. 결국 이날 새벽 3시50분경 촛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씨의 아내 김씨와 외손자가 숨졌다. 주씨도 머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주씨 부부는 딸을 대신해 외손자를 출생 직후부터 자신들의 호적에 입적해 키웠다. 세 자녀가 있었지만 모두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주씨는 평소 다리가 불편해 아내가 유아공장에서 일해서 버는 돈이 생활비의 전부였다. 지난 2010년 ‘자활 근로’를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됐지만 지난해 탈락했다. 주씨가 몸 불편 등을 이유로 자활 근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김씨의 건강도 나빠져 사실상 수입이 전무했다. 고흥군에서 지원해주는 라면 등 얼마 되지 않은 생필품이 전부였다. 고흥군 관계자는 “사정을 듣고 9월부터 집중 관리를 해왔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고흥=주각중기자 gju@

## 광주·전남 560가구 ‘전류 제한’

21일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전류가 제한된 주택은 모두 560가구다.

이들 가구에는 모두 ‘전류 제한기’를 부착해 전력 순간 사용량이 220W를 넘어서면 차단기가 작동, 전기가 순간적으로 끊기게 돼있다. 하지만 리모컨 스위치를 누르면 다시 220W 이내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220W는 형광등 2개, 25인치 TV 1대, 150ㄹ들이냉장고 1대를 동시에 쓸 수 있는 만큼의 전력이다.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에는 전기요금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

면 단전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기가 기본 생존권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단전을 하지 않고, 전류 제한기를 부착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2004년 2월 목포에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 조치된 집에서 불이 나 장애인 부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도입됐다.

한전 관계자는 “전류 제한기도 흑서기(7~9월)와 흑한기(12~2월)에는 전류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제한기를 설치하면서 충분한 교육을 하고, 전기요금에 월 2000~3000원에 그친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뇌물 여행사 대표 구속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21일 여행사 선정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정음 S여행사 대표

유모(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북도청 간부 박모씨에게 자격정지 1년에 선고를 유예했다.

/정음=박기섭기자 parksk@

## 나원침 (8695) 김장동



### 광주서 실종 50대 여성

### 내연남 집서 숨진채 발견

광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이 내연남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장모(여·50)씨가 이날 오후 1시30분경 광주시 서구 내방동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패가 심해 외관상 타살 흔적 발견은 쉽지 않지만 누군가 시신을 사후 처리한 정황이 발견돼 타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

### 생활정보지 5부 가져간 70대 무죄

○생활정보지 5부를 가져갔다가 절도범으로 몰린

70대 부동산 중개업자에 무죄 판결.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21일 지난 8월 광주시 북구 용봉동 길거리에서 비친 생활정보지 5부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김모(71)씨에게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신이 낸 방 임대·등업자 구인 광고를 담은 생활정보지 2부, 다른 3가지 생활정보지 1부씩을 가져왔다”며 “실제 구독하려고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고 불법적으로 챙기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참깨 화린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침기를 거치며 붓고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 및 친족, 이웃간의 상충부조의식 해일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보다 더욱 빈안해야 할 사신이 너무 부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소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차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인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죽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 24시간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